

광주, 꼭 쓸 곳만 '잔돌이 재정'... 전남, 소멸위기 극복 '총력'

광주시·전남도 내년 예산 편성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에는 줄어든 공간 사정 등을 감안해 잠재한 민생 경제 회복과 서민 복지 향상에 집중한다.

◇광주시, 꼭 필요한 곳에 집중...효율 극대화=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더라도 쓸 곳만 꼭 쓰는 '잔돌이 재정 운영'이 핵심이다. 정부의 재정난 등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가장 먼저 '민생 안정 위해 제대로 쓸 데 쓰는 적극 재정 운용'을 기치로 내세우고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 성과·추진 실적 분석으로 지원 규모 재분배, 유사·중복성 사업 통합 등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돌봄·복지 확대를 위해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사회적약자 지원 등에 만 1조 1959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임신부 고용 유지 지원 등 광주만의 대표 사업을 위한 예산도 2309억원으로 대거 책정됐다.

광주시는 또 지역 대표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 육성을 위해 1345억원을 편성했다.

낮은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앱 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8억3000만원을 편성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이 9.8%로 책정한 중개 수수료를 2%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책 읽는 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구립도서관의 책 구매 비용으로 기존 12억원 정도만 편성했던 관련 사업은 13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시는 고금리(평균 3.7%)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절감,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고령화와 젊은층의 수도권 이탈 가속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 출생기초수당'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58억원을 편성한 점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의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광주시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통합
민생 안정 위해 효율 극대화

전남도

1~18세 출생 기본수당 추진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 편성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5억5000만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1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5억원) 사업 등도 무관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로 160억원을 편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182억원) 사업 등도 청년층의 전남살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춘 점도 두드러진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지원(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16억원) 등을 통해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 지원비(23억원) 등을 편성해 어려운 서민들을 보듬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사·군 자치단체에 왕진버스를 보내 고령화된 지역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9억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1억 6000만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3억 6000만원) 등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여성 농어업인들을 위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도 60억원을 반영, 75세에서 80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전남도는 또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에 130억원을 반영하고 여수·대불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남 스마트산단 촉진사업(23억원) 등을 추진해 신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가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34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 3지구 내 들어선 시데이터센터.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가 12조 54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무안공항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리~목포) 구간 건설 공사 현장.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독서교육 확대...2조8752억원 전남도교육청, 미래교육 중점...4조8850억원

시·도 교육청 내년 예산안 제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11일 각각 2조 8752억원, 4조885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예산보다 1934억원(7.2%) 증액했으나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지자체 법정 전입금을 감안하면 실제 증액은 69억원(0.24%)에 불과하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조7134억원, 학교·기관운영비 2088억원, 교육사업비 7066억원, 시설사업비 2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 77억원으로 편성됐다.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학생맞춤 다양성 교육을 위해 공동교육과정운영·교원수업연구문화 활성화 7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1억원,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 11억원,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 28억원, 독서 인문 학교교육 예산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을 위해 늘봄학교프로그램 다양화 228억원·유보통합 1386억원·특수교육 지원 172억원·무상급식 꿈드림 지원 2011억

원을,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학생스마트기기 보급과 확대 전산망 구축 지원 389억원·AI팩토리 구축 77억원 등을 반영했다.

전남교육의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715억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826억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563억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1조 4221억원 등이다. 융합적 사고력을 통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430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조멸에 대응하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 880억원,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남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804억원, 학생 교육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식 운영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지역교육의 혁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확산에 49억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54억원,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733억원, 급식실 환기 등 시설개선 293억원이 반영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농업인의 날...尹대통령 "규제 개혁해 농업인 삶 풍요롭게"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농촌의 토지 이용 규제부터 신속하게 개혁해 농업인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한국형 소득경쟁 안전망으로 농업인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구 농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 축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흙(土)이 '십(+)'과

'일(一)'로 이뤄진 점에 착안해 제안된 날로, 지난 1996년 정부 기념일로 제정됐다.

행사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정용동 다나 대표가 받았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 대표 재임 시절 종자 수출을 확대했고, 이후 다나를 인수해 종자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연합뉴스

제4회 무안 YD 페스티벌
2024. 11. 15. 금 - 11. 17. 일
삼향읍 남막중앙공원